

# 한국사의 수도

---

## ① 고구려, 백제의 수도

---

1차시. 고대국가의 형성과 수도

2차시. 고구려 초기 환도성과 국내성

3차시. 고구려의 남진과 평양성

4차시. 백제의 건국과 한성의 상실

5차시. 웅진, 사비천도와 백제의 도성제

6차시. 고구려, 백제의 천도의 의미

## 01

고구려, 백제의 수도

## 1. 고대국가의 형성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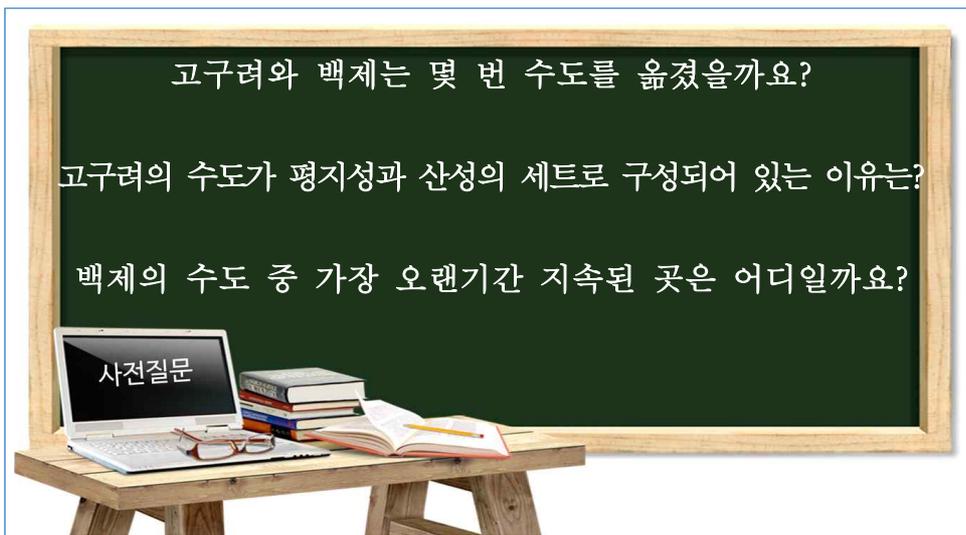
학습 목표

- 고대의 수도, 도성, 왕성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 고구려, 백제의 천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 1. 들어가기

장기간 수도가 변하지 않은 신라와 다르게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의 팽창과정에서 수도의 이동이 있었다. 장기간 지속된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수도는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의 충돌로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멸망 직전 양국의 수도는 고대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정연한 구조로 정비되었다.

## 2. 준비하기



정답 3번

정답 군사적인 방어력의 보강

정답 한성(서울)

## 3. 학습하기

본 강좌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에 대한 강의에 앞서 고대국가의 수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는 국가의 중심 치소이자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의 주요한 무대가 되는 곳이다. 수도는 내외부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를 천도(遷都)

라고 한다.

고구려의 중국 요령성(遼寧省) 환인(桓仁) 지역인 졸본에서 건국하여, 첫 번째 수도로 사용하다가,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 지역의 국내성으로 처음 천도하였다. 이후 고구려가 적극적인 영역 팽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진이 진행되었다. 과거 한반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남진 기지에 해당하는 평양으로 두 번째 천도가 진행된다. 평양에서도 안학궁에서 장안성으로의 세부적인 중심지의 이동이 존재하였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는 한성이었다. 기록에서는 위례성으로 언급되며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수도가 운영되었으나, 앞서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된 이후,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천도가 진행되었다. 백제는 수도의 정비를 위하여 웅진에서 다시 충청남도 부여 지역인 사비로 두 번째 천도가 진행되었으며, 백제 무왕 시기에 전라북도 익산 지역인 금마저로 천도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였고, 백제 멸망기까지 사비는 백제의 수도로 이용되었다.

## 4. 요약하기

고구려와 백제를 포함한 고대국가의 수도(首都=王京=王都=都城)는 왕권이 수반된 통치의 거점이면서 문화의 중심지이다. 두 나라는 국가의 성장에 따라서 각각 3차례 수도를 이동하였는데, 이를 천도라고 한다.

각각의 천도는 특정한 목표가 있으며, 천도를 거듭하면서 왕경은 도성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또한 고구려는 지역의 이동은 없지만 한 지역 내에서 왕성의 이동이 확인되거나, 실제로 완성하지 못했으나 백제는 수도를 옮기고자 한 시도가 확인되기도 한다.